

OECD/DAC 평가네트워크 회의

OECD/DAC EVALUNET은 전체회의를 통해 향후 동네트워크의 활동전략, 평가역량강화 및 공여국별 평가추진 현황 등을 논의한 바, 주요 내용을 아래에 서술함.

I. 회의 개요

- 회의명 : 제 11차 평가네트워크 전체회의
- 일시 : 2010년 11월 16일~17일

II. 주요 내용

1. 2011/2012년도 운영전략 및 세부추진사업 논의

EVALUNET의 2011/2012년도 운영전략 및 세부추진사업은, 현재 이행중이거나 계획중인 공동평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과 동시에, 평가결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확산하고 활용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.

2. 다자기구 평가보고서 메타평가의 합의 도출 실패

다자효과성 평가 관련, MOPAN 등 기존 평가방법론 보완 차원에서 다자기구 평가보고서에 대한 메타평가를 시범 실시하였으나, 회의에 참석한 다자기구를 중심으로 동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되어 향후 평가 추진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함.

3. 평가의 양극화 현상

회원국들의 평가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, 탄자니아, 방글라데시, 필리핀 등 일부국가에 대한 평가 집중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으며, 분쟁 및 취약국가 등 평가 수행이 어려운 국가에 대해서는 평가가 저조한 문제점이 제기됨.

III. 평가

- 다자효과성 평가의 경우, 평가대상인 다자기구들이 평가수행에 참여함으로써 독립적인 평가가 진행되지 못하고, 평가목표 및 방향에 계속 혼선이 생기고 있는 바, MOPAN 이외의 대안이 네트워크 차원에서 도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.
- 사무국측은 현재 진행 중인 파리선언이행 2차 평가가 HLF-4의 핵심의제로 반영되고 평가결과가 확산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주최국인 우리나라의 관심과 협조가 긴요하므로 향후 프로세스에 우리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함.
 - 동 파리선언 2차 평가의 윤곽이 드러나는 내년 상반기에 동 네트워크와 공동 포럼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- 금번 회의에서는 정량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평가의 수혜자 관점을 반영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다수 관찰됨.
 - 우리나라에서는 정량평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근래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단위에서 정량적 성과평가를 일부 시도하고 있으나, 정량평가의 경우 국내 원조사업 전반의 변화가 요구되는 등 행정상의 타당성(Administrative feasibility)이 낮고, 타 공여국에서도 정량평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경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평가접근방식에 있어 두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.
 - 특히, 사업설계 및 평가단계에서 수혜자에 대한 심층적 조사 및 분석을 강화하여 수혜자의 명확한 필요 및 문제를 분석하고, 이에 따라 사업목표를 수립·관리함으로써 산출물 위주의 사업관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금번 회의의 공식 및 비공식 세션을 통해 회원국들의 평가정책 동향이 분권화(원조기관 해외사무소의 평가역량을 강화하여 자체평가 수행 확대)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관찰됨.

- 이러한 동향은 원조사업의 현장화 및 분권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므로 우리의 원조 선진화 전략에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.
- 평가역량 강화방안과 관련하여, 원조기관 직원들 및 외부전문가(기관)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국의 사례와 성과가 소개된 바, 우리나라도 동 사례들을 수집하고 벤치마킹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.